



박소현의 섹.시.토.크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아내 있다



차과장이 영업부서로 옮기면서 화려한 밤 문화 세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3년이라는 세월은, 세상에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없는 줄 알았던 그를 안마방 단골로 만들어 주었고 톱살롱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야하게 놀 수 있는 비법을 깨치게 만들었다.

다.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렇게 차과장의 밤 생활은 활짝 꽃을 피웠다. 톱살롱은 생활에 활력을 주었으며, 안마방은 생활의 피로를 풀어주었고, 시시때때로 뚫은 마담들과 주고받는 문자는 생활의 잔재미였다.



하해 놓으면 내가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전화 안 할걸 아니까 시간 벌려고 그런 거지. 아니나 다를까? 딱 5분 뒤에 카드 끊었던군. 지난주? 그때는 톱살롱 갔다가 2차 갔겠지. 말짱하게 술 깨서 들어온 거나 집 앞이라 해 놓고 2시간 뒤에 들어온 거 보면 뻔해. 뭐? 네 남편이 노래방에서 20만원 끊었다? 어휴, 너는 그걸 믿어? 밤새 노래 불러봐라 20만원 나오나."

다가서 삼사백씩 벌어서 애들 키울 수 있겠나? 도저히 더러워서 못 살겠다 싶으면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근거로 이혼소송 들어가자. 카드 내역서, 영수증, 그년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모아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차과장의 놀이문화가 진화하는 속도에 맞춰 아내도 진화했다. 인터넷에 산재한 주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남자들의 방문화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돼 있을뿐더러 톱살롱에서 어떻게 노는지 무삭제로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까지 공유되고 있을 정도이다. 카드 명세서 금액만 밝히면 어디서 어떻게 놀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정보 도우미들도 넘쳐난다. 먼저 당한 아내들이 선구자가 되어 아직 미망에 사로잡힌 초보 아내들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마냥 즐기고 있는 남편들은 하루빨리 정신차릴 지어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속여 보겠다 두 주먹 불끈 쥐는 남편도 있을지 모르겠다. 모르긴 몰라도 당신의 아내 역시, 아마 더 철저하고 집요하게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제나 뛰는 남편 위에는 나는 아내가 있는 법이다. <연애 칼럼니스트>

“어떻게 놀건 관심 없어.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차과장은 저 여자가 과연 내가 10년을 알고 지내온 여자가 맞는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다. 어쩌나 놀랐는지 다리까지 후들거렸다. 그러나 차과장이 믿거나 말거나 아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어떻게 놀건 관심 없어.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어

이 세상에 또 다른 재미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차과장은 어느새 밤 문화 중독자의 경지에 올랐다. 처음에는 거래처 접대나 있을 때만 다니던 곳을 이제는 마음 맞는 동료들끼리 조를 짜서 다니고, 동료들이 안 가면 혼자서라도 다닐 지경이 되었으니까.

도대체 포스터 속에서 가슴을 드러낸 배우가 누굴까. 영화 '해부학 교실'의 '반라 포스터'모델의 주인공인 예로배우 출신 엄다혜가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한지민 주연의 영화 '해부학 교실'의 가슴 노출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는 가슴을 드러낸 채 해부용 시체로 분한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 엄다혜는 봉만대 감독의 '스파링 파트너'를 비롯해 '젊은 놈만 아는 여자' '몰래 먹은 영덩이' 등

작은방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어제도 안마방 갔더라구. 뻔하지 뭐. 카드로 금 18만원 뜨는 걸 보니 회사 앞 사거리에 있는 단골 안마방에서 놀아났겠지. 10시에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들어온다고 전화 했었거든. 자기가 전

검색절정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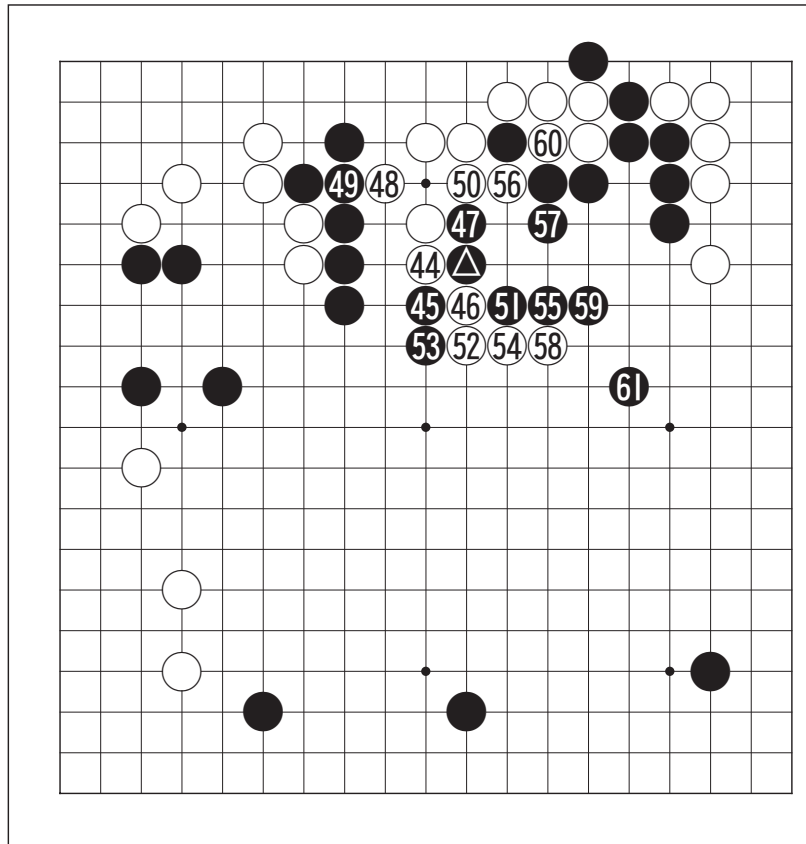
영화 '해부학 교실' 포스터 주인공 엄다혜는 누구

에 출연했다. 또 인기 댄스그룹 출신 여가수 A씨가 수억원을 받고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자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여가수를 비롯, 개인회생을 신청한 연예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잡지사측은 20대 여성의 가슴에 메르켈 독일 총리의 얼굴을 합성한 뒤 쌍둥이 형제인 폴란드의 총리 야로슬라프 카친스키(왼쪽)와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오른쪽)에게 젖을 먹이는 합성 사진을 실었는데, 파문을 일으키면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날리지고 있다. MC 유재석이 MBC 나경은 아나운서와 올해 중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 커플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았고 가수 겸 제작자 강인원이 갑상선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는 소식으로 관심을 끌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폴란드 한 주간지가 게재,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합성 사진



명당 놓치고 만 제자리걸음 3보(44~61)

백 박명수 5단 (농협) / 흑 이창준 5단 (주송림)

야 하는 와중에서도 56의 선수가 따끔한데다 58까지 밀어붙여서 46으로 끊은 의도가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60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리걸음으로 흑 함정을 파낸 수가 대안책이 되고 만다. 이 수는 당연히 '참고도'의 백 1로 가야할 자리로 백 대마는 흑 2로 잡으러 오더라도 7까지 깨끗이 살아있다. 흑 2로 3으로 두더라도 '가'로 막으면 잡는 수가 없다. 흑 61이 천하의 명당자리로 단번에 흑의 우위가 확립되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혜연, 여류명인 결승 선착

조혜연 7단이 28일 스키야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9기 STX배 여류명인전 승자조 4강에서 김혜민 4단을 221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승자조 결승에 진출했다. 조 7단은 전기 대회 준우승자인 이다혜 3단과 도전자 결정전에서 격돌한다. 조 7단은 이날 1승을 보며 24승 12패를 기록했다. 패한 김혜민 4단은 패자조로 밀려났으며, 패자조 2회전에서 권효진 5단을 상대로 제기를 노린다. 루이나이웨이 9단이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여류명인전의 우승상금은 1천200만원(준우승 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te 6월 29일 (Friday, June 29th).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child, with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Table with 4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1. '굿모닝 잉글리쉬 <937>' (Where could I find him?); 2. '오하오우 니혼고 <937>' (何か心配事(しんぱいごと)でもあるんですか); 3. '니하오 쑹구위 <128>' (我们去看球赛吧); 4. '한자 이야기 <554>' (清談 (청담)).